



공적 영역의 관점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Public Sphere in Asia



김민석 Min-seok Kim

한국공공신학연구소 The Centre for Public Theology Korea
minseuk79@gmail.com

<초록>

한국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이후 매우 짧은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내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외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시기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의 기독교의 거룩과 부흥을 위해 헌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격변 속에 있는 아시아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혁과 전통 속에서 기독교와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아우구스티누스 - 루터 - 칼뱅으로 이어지는 그 변천 과정을 통해 알아본다. 이어서 리처드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다섯 가지 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할 방법론으로써 공공신학적 태도를 제안한다.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정립한 후에는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여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기독교가 어떤 주제로 공공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곳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데, ‘평화’,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가 예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 기독교의 거룩과 부흥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1. 들어가는 글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는 아시아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도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거룩과 부흥이 오직 예배와 기도와 헌금 생활과 같은 예전적 행위에만 달려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과 부흥은 성도 개인의 예배 생활과 교회 밖 세상에서의 신앙적 삶, 이 두 영역의 균형 있는 실천을 통해 더욱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시대에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예배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교회 밖 세상을 공공 영역이라고 간단히 규정할 때, 결국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는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에 관한 고찰이 선행될 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두 정부의 ‘이중 국적 시민’이다. 하나는 ‘영적 정부’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 정부’이다. 그러나 이 두 정부의 법과 윤리, 통치 방식이 서로 다르며, 결국 이 불일치로부터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위해 기독교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Heinrich Bedford-Strohm)¹은 신권 국가(theocratic state)와 무신론 국가(atheist state) 모두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한다.² 즉, 신권 국가에서는 정부가

1 세계 공공신학계를 리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개신교 협의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의 회장을 역임했다.

2 Heinrich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a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24.

특정 종교의 권위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와 중세 카톨릭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무신론 국가에서는 정부가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무신론 국가에서 종교는 국가에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정부와 종교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견해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두 정부론이 그동안 어떻게 논의 되어왔는지 역사적, 문헌적 연구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델의 특징과 각 모델이 가진 단점을 분석하며 개혁과 전통은 그 중 어떤 모델을 선호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 모델들이 보여주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공공신학적 태도를 소개한다.

특히 문화 변혁 모델로 접근하기 어려운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선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인해 자연스럽게 갈등의 환경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평화'라는 주제는 아시아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평화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적극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익숙한 주제이다. '기후 위기'라는 주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고민이기에 기독교가 이 주제로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 자리 잡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토대로 각 국가별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후속 연구자의 몫으로 남긴다.

2. 교회와 공공 영역의 관계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정부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두 정부 이론의 시작과 발전 과정 속에 나타

난 다양한 신학적 차이에 대해 서술한다.

2.1. 두 정부 이론의 변천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runen)에 따르면, 개혁과 전통이 두 정부 이론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활동을 다스리시되 근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영적 나라)를 다스리시고, 창조주와 보존자로서 국가와 다른 모든 사회 제도(시민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런 이유로 두 정부의 "목표와 기능과 작용 방식"은 크게 다르다.³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의 '두 도성 교리'는 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알맞다. 그는 "두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구별했다." 전자는 "모든 참된 예배자들로 구성된 하늘의 예루살렘"인 "종말론적 도성"이다. 이와 달리, 후자는 "참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즉 모든 악인들로 이루어진다." 각 개인은 이 둘 중 하나의 도성에만 속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도성에, 비기독교인은 인간의 도성에 거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과, 시민 정부를 지상에 현시된 인간의 도성과 느슨하게 동일시한다."⁴

그러나 현재에서는 이 두 도성이 서로 얹혀 있어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참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독교인이 국가와 더 넓은 사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도성의 일원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평화를 활용하며, 비기독교인과 함께 직업을 향유할 수 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 간의 확실한 대립을 기초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두 왕국 교리의 확립은 당시 그가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 개혁자로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세속 정부를 지배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며, 그의 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Frederick)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인해 세속 정부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도 프리드리히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루터는 그의 소논문 "세속적 권위"(Temporal Authority)에서 두 왕국 교리를 자

3 데이비드 반드루넨,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14.

4 Ibid., 45.

세히 설명하고 있다. 루터는 창세기 4장 14-15절과 9장 6절을 인용하며 세속적 권위가 처음부터 주어졌고, 모세의 율법과 세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주장한다.⁵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위해 두 개의 통치를 세웠다. 영적 통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참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속적 통치는 악인과 비기독교인을 법과 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⁶

그러나 루터 역시 두 왕국 간의 대립과 공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이 비록 구별된 왕국의 백성으로 살지만 세속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시민 권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돕지 않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⁷ 이로써 루터도 역시 기독교인이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반드루넨에 따르면, 루터의 두 왕국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교리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은 어느 한 정부에만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진실로 두 고향과는 다른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연속성도 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진정한 지상 영역의 시민으로 여기면서 기독교적 사랑의 분명한 표현으로서 시민 영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기꺼이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⁸

장 칼뱅(Jean Calvin)의 이중 정부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확실히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또는 인간의 나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두 정부는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서로 다른 통치 방식이 적용될 뿐이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두 나라 모두의 회원이다."⁹

칼뱅의 이러한 주장은 먼저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며, 나아가 당시 시민 정부의 전복을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시도했던 재세례파와 대립된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 정부에 속하여 영적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곧 시민 정부의 통치에 불복종하라는 것을 의미

5 Martin Luther,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Luther's Works*, Vol. 45, ed. Walther I. Brandt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85-88.

6 Ibid., 91-92.

7 Ibid., 94.

8 반드루넨, 『자연법과 두 나라』, 104.

9 Ibid., 119.

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정부와 시민 정부는 확연하게 분리될 수 없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도성의 대립 구조를 매우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공통성의 가능성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이어 루터와 칼뱅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두 정부의 공통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며, 심지어 칼뱅은 두 정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결국 세상과 격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2. 문화 변혁적 세계관

교회와 정부의 관계, 즉 이 두 정부가 완전히 대립하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립하나 그 안에 통일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교회가 정부 또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결정된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 기독교인은 주로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참고한다. 그는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¹⁰ 첫 번째 분류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모델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터툴리안(Tertullian)과 톨스토이(Tolstoi)가 있다. 이 모델은 문화 자체를 죄의 결과로 여긴다. 특히 터툴리안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대립관계를 강조했다. 이 모델은 기독교의 사회 문화적 책임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계시’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려는 이원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두 번째 모델은 ‘문화 속의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이다. 문화 속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와 19

10 리처드 니버, 홍병용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이 분류가 기독교와 문화의 역동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도식화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제는 현대에 맞는 더 발전된 분류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세기 문화-프로테스탄티즘이 이런 자세를 취했다. 니버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신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우 왜곡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는 단지 어떤 이념을 뜻하는 것으로 격하된다. 계시 역시 지능이 낮은 일반인을 위한 ‘우화’로 폄하한다. 문화의 격상은 반대로 ‘원죄’를 제거한다.

세 번째 모델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이다. 이 모델은 문화와 그리스도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긍정하는 ‘종합유형’이다. 이 유형이 첫 번째 모델과 다른 점은 문화에 대하여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모델과 다른 점은 반대로 그리스도와 문화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교회는 신법의 관리자이며 세상의 질서를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위계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네 번째 모델은 ‘문화와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이다. 이 모델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문화에 속해 있으며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고 간주한다. 결국 이 부패한 문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계시와 이성 등 대립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 이것은 ‘중간 지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적 경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반 율법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회에 대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회의주의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 이들은 종교적 제도나 종교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만 관심 갖고 사회적 문제들에는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ing Culture)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모델과 유사하지만, 문화를 변혁할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변혁을 시도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두 극단적 모델의 중간 단계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에서 문화 활동도 함께 할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파 교회들은 대부분 이 셋 중의 하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개혁파 교회들은 특히 ‘문화 변혁 주의’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공공신학적 태도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먼저 ‘영적 정부’와 ‘시민 정부’의 대립 관계를 인정하되, 기독교인을 두 정부 모두와 관련된 ‘이중 국적자’ 또는 ‘순례자’로 여기며 피할 수

없는 공통적 관계가 있음을 인지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과 단절되어 어떤 고립된 공동체로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세상 속에 거주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개혁파 기독교인은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모델 중 양 극단을 제외한 중간적 모델을 선호하며, 특히 기독교인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변혁시켜야 한다고 보는 문화 변혁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실천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즉, ‘역설 모델’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회의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을 취하는 기독교인은 비록 이 모델이 문화를 대립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교회 내에서 사적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불러온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대부분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진보적’ 또는 ‘좌파적’ 교회로 인식한다.

한편 문화 변혁 모델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종종 폭력적 태도를 보이곤 한다. 이들에게 세상의 문화는 궁극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자리 잡아 이들을 계도 내지 교정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대하여 마치 ‘도덕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본래 니버가 의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가 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태도는 기독교인 인구가 많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아니다.

이런 양 극단적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 세상과 문화에 대한 ‘공공신학적 태도’는 매우 유용하다. 특히 개혁파 공공신학¹¹⁾은 기독교와 세상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대화의 파트너로 간주한다. 이들은 도덕 선생으로서 세상 위에 자리하려는 것을 지양한다. 세상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 변혁 모델이 창조-타락-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 속에서 죄악 된 세상을 구속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공공신학은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반드

11 공공신학계에서 개혁파 공공신학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넓은 스펙트럼의 공공신학들 중에서 특히 개혁주의 사상을 그 신학적 기초로 하여 공공신학을 개진하는 것을 개혁파 공공신학으로 간주한다.

루넨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적 나라를 구속주로 통치하시고, 시민적 나라를 구속주가 아니라 창조주와 보존자로 다스리신다.”¹² 이렇게 세상을 여전히 창조주께서 다스리신다는 인식 아래 세상을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 세상이 기독교인을 폭력적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준다. 게다가 이런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변혁 모델이 추구하는 변혁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베드포드-슈트롭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공공신학적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¹³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 능력’은 공공신학을 다른 신학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 교회 밖 공공 영역에서 비기독교인들과 대화 할 때, 기독교인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기독교인만 설득될 수 있는 논리로 대화하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론장에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종교적 언어를 날 것 그대로 사용할 경우 ‘대화 종결자’¹⁴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이유로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곤 한다.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 크리스텐덤에서 기독교는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었다. 교회의 법이 세상에도 영향을 주었고,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리스텐덤의 시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 크리스텐덤의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가 고도로 성장하던 때에, 기독교는 서서히 권력의 자리로 이동했다. 기독교 역시 세속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부흥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기에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고 내심 교회에 출석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개인의 영달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다소 무례하게 굴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더 이상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기독교의 인구가 아직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과연 모두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다. 최근 미디어에 노출된 기독교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며 이런 사회 속에서도 이전과 같이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

12 반드루넨, 『자연법과 두 나라』, 124.

13 베드포드-슈트롭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여섯 가지 특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민석,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롭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37-75.

14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17.

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야말로 ‘무례한 기독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세상이 설득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 겸손하게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불교가 국교인 국가에서 기독교가 세상 위에 위치하려 하거나, 다소 공격적인 태도로 세상을 변혁하려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들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고 공격적 물량공세로 선교하려는 태도가 여전한 것은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처사다. 아시아 기독교가 거룩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을 공공신학적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3. 아시아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지 않고, 비기독교인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회 문제는 곧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버리고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베드포드-슈트롬은 교회는 항상 공적 교회였으며 교회의 공적 발언이야말로 교회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¹⁵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고유의 신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확고한 기독교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은 “한편으로, 대중과의 만남, 공통 언어의 축진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독특성과 공헌을 잃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의 가치와 이해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 속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적 플랫폼에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¹⁶고 지적한다.

결국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공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의 방법론도 중요

15 Heinrich Bedford-Strohm, “Klar Und Verständlich,”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47.

16 Sebastian C. H.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2011), 19.

하지만, 어떤 주제로 공론장에 참여하여 기독교 신념으로부터 나온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인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어떤 주제로 다가갈지의 문제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신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나, 아시아의 상황에 맞는 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천될 수 있다.

3.1. 평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종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대에 ‘평화’는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이자, 기독교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그의 책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에서 교회가 “평화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그 신실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의 이해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¹⁷

물론,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종종 보임으로 인해 세상은 기독교가 이 문제에 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되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먼저 반성적 자세로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구 기독교가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 편승하여 폭력적 선교를 감행했던 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행히도 서구 신학계에서는 자신의 조상들의 침략적, 폭력적 모습을 반성적으로 조명하는 일이 많아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백 인종 차별의 정당성을 신학자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나서서 제 공해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던 찬란한 신학적 유산이 한순간 폭력적 죄악을 승인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어쩌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공신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이들이 세계 공공신학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신학적 반성과 회개를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중 "상호맥락적 특성"이다. 만약 한국 기독교가 한국적 경험과

17 볼프강 후버,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18.

사고에만 머물게 될 경우, 자신이 따르는 기독교 신념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혁주의 사상이 폭력과 인종차별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서구에서 제 3 세계로 일방적 신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서로 배우기를 원한다. 나아가 모든 지역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신학 개념이 아닌, 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한 다양한 공공신학들(public Theologies)이 있을 뿐이다.¹⁸

한 지역의 갈등과 평화 문제는 이제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봐도 상호맥락적 특성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할 때, 한국 기독교의 경험은 이웃 국가의 기독교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는 아시아 기독교에 평화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의 이미지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도록 도운 이미지가 강하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압제와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작금의 휴전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휴전의 기간이 80년에 가까워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다. 민족의 평화 통일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며 통일 담론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왜 통일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사명이기도 하다.

정작 분단의 긴장이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그 위험에 무감각한 반면, 세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발사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제와 결부 되어있다. 기독교의 시선으로 바라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한숙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닌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먼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¹⁹ 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방향성을 기독교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18 Dirkie Smit,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eds. Sebastian Kim and Katie Day (Boston: Brill, 2017), 85–86.

19 한숙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 『기독교와 통일』 14/1(2023), 77.

이를 위해 김경숙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면 모두의 인간성과 공동체가 붕괴되지만,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간성 유지와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용서하는 능력에는 타자를 향한 용서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용서, 공동체적 용서도 포함된다.”²⁰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은 다양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기독교는 각 국가들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 더 안정된 사회로 나가도록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을 통해,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도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시아 기독교와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번영’(flourishing)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3.2. 기후 위기

기후 위기는 현대의 전 인류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이다. 세계 기상 기구(WMO)는 금년 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고 발표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끝나고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 했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만큼 이 문제는 매우 빠르게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매년 큰 피해를 당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온실 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사실이 ‘기후 정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의 선진국에서 배출된다. 그러나 오히려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만을 배출한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10억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²¹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이상 기온에 따른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뭄, 홍수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 내놓을 뿐이다. 정작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 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20 김경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용서 개념, 가치,” 『기독교와 통일』 14/1(2023), 92.

21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선 기후제약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2022), 6-7.

기후 위기는 자연 재해만 불러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간 기후 변화 협의체(IPCC)는 금세기에 곡물의 수확량이 10년마다 2%씩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곡물 수요는 10년마다 14%씩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식량의 부족 문제는 곧 기아와 내전의 문제로 확대되고 이를 피해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난민, 소위 ‘기후 난민’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²²

박정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2015년 시리아 내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흉작으로 인한 실업과 곡물 가격 상승은 반정부 시위를 불러 일으켰고, 유혈 진압에 의해 시민이 사망하자 내전으로 번졌다. 이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두고 정치적 갈등 상황에 빠졌으며, EU는 난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수정했다. 급기야 영국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이것은 브렉시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²³

사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인류에게 청지기로 이 지구를 맡기셨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종종 이 명령을 사람이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 신념이다.

이 시대 대표적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John Stott)는 환경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지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답은 시편 24편 1절에 적혀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라.”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서 보듯이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땅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임차’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은 “협력적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통치’는 ‘파괴’와 동의어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자원을 맡기셨고, 우리는 자신의 이후 세대를 위해 그것을 책임 있고 생산적으로

22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281(2020), 6-7.

23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기후제약까지,” 7-8.

관리해야 한다.”²⁴

트램퍼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 역시 창세기 1장이 “환경을 착취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 형상이 인간의 지위(status)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피조물을 자비로운 통치자로서 돌보는 하나님과 같이, 그 지위를 받은 인간도 역시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봐야한다. 그는 “성경은 환경 손상을 인간의 죄와 연결시키는 한편 환경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의 심판 및 구속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을 돌보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적한다.²⁵

그러나 아시아 국가 안에서 기독교가 기후 위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실천을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경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진한다고 할 때, 당분간 에너지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일반 가정에서 지출하는 에너지 비용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스토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생태학적 청지기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물론 그는 선진국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빈국에서는 적용하지 말자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하나의 지구를 함께 지켜야한다는 생각과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빈국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기독교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성경적 근거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산시켜 그 추동력을 제공해야하며,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빈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해결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3.3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다룬 두 주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분명 아시아 기독교가 이런 메타 담론에도 헌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24 존 스토틀,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8), 170-76.

25 트램퍼 롱맨 3세, 안영미 역, 『성경과 현대의 공적 이슈』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292-93.

26 스토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183.

작은 범위에 한정된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도 기독교가 관심을 갖고 성경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펠릭스 윌프레드(Felix Wilfred)가 지적한 것처럼 “공공신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맥락을 고려한다.”²⁷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가 매우 풍요롭고 종교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민주화되었지만 더 많은 국가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가 전혀 꽃 피우지 못하는 강력한 공산 독재 체제에 있기도 하다. 사실 공공신학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국가에서 어떻게 공공신학을 전개할 것인지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공론장의 기능이 약한 곳에서 기독교는 압제 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처럼 어느 정도 발전된 민주주의 구조와 넓은 공론장을 가진 국가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민주적 제도의 기초가 형성된 국가, 비교적 개방적인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에서는 군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정치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발한 시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²⁸ 이밖에도 정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 계급 제도, 의료 체계, 공정 무역, 인권, 노동자의 기본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4. 나오는 글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공공 영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독교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 루터 - 칼뱅으로 이어지는 두 정부 이론의 변천 과정을 통해 개혁과 전통이 기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설정하여 이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

27 펠릭스 윌프레드, “아시아 신학의 미래와 공공신학,” 펠릭스 윌프레드 외,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67.

28 로웨나 로빈슨, “아시아 공공신학: 사회학적 관점,” 펠릭스 윌프레드 외,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32-33.

이 명확하고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공통성에 조금 더 열려있으며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칼뱅은 이 두 정부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 두 정부를 통치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처럼 개혁과 전통은 기독교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고유의 신념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비록 니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다섯 가지 모델이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개혁과 전통은 이 다섯 가지 모델 중에 ‘문화 변혁 모델’과 ‘역설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모델’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종종 ‘무례한 기독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신학적 태도’는 이러한 단점을 수정해 줄 수 있다. 공공신학은 세상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공공신학적 태도를 견지한 기독교는 세상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존중한다. 세상을 이런 태도로 대할 때, 비로소 문화 변혁 모델이 추구했던 세상의 변혁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

세상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세상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유될 수 없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 ‘기후 위기’ 같은 주제에 천착해왔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공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 역시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기독교가 그동안 고민하며 찾았던 열매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는 그 누구보다 기독교가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족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를 위한 신앙적 결단은 이웃 국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은 민족 간, 계층 간, 성별 간, 종교 간의 화해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 위기’ 문제는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관심 가져야 할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독교의 무관심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착취해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기독교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 외에도 아시아 기독교가 관여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들은 산재해 있다. 아시아 기독교는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기여해야 한다. 특히 아직 민주화 되지 않았거나 공론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기독교는 특별한 방법으로 시민 사회를 도울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문을 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략적 연구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에 만족한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특색을 분석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찾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edford-Strohm, Heinrich,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_____.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Zürich: LIT Verlag, 2018.

Kim, Sebastian C. H.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2011.

Luther, Martin.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Luther's Works*, Vol. 45, ed. Walther I. Brandt. Philadelphia: Muhlenberg, 1962.

Smit, Dirkie.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eds. Sebastian Kim and Katie Day. Boston: Brill, 2017.

니버, 리처드. 홍병용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롱맨 3세, 트램퍼. 안영미 역. 『성경과 현대의 공적 이슈』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반드루넨, 데이비드.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8.

스토트, 존.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8.

윌프레드, 펠릭스. 황경훈 역. 『아시아 공공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21.

후버, 볼프강. 채수일 역.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김경숙.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용서 개념, 가치," 『기독교와 통일』 14/1(2023): 91-127.

김민석.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37-75.

박정희.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선 기후재앙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2022): 1-18.

조천호. "기후위기, '거대한 가족'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시선집중』 281(2020): 1-10.

한숙원.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의 역할,” 『기독교와 통일』 14/1(2023): 59-89.



공적영역 논평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논평



김은득 Eun-Deuk Kim

미국 칼빈신학교 Calvin Theological Seminary
edkim5@calvinseminary.edu

김민석 박사는 소논문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서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과 리처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룬 후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주제들, 가령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들을 논의한다. 김민석 박사는 “이 두가지 주제 외에도 아시아 기독교가 관여하고 고민해야할 주제들은 산재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연구범위를 “공공 영역에서 아시아 기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문을 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공공신학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주제들에 천착해 있었다는 저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평화나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들에 기독교적 대안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섬기는데 있어서, 과연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이나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선이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먼저 김민석 박사는 평화를 다루면서 “전 세계는 지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정치, 세대, 성별, 종교 등의 갈등이 끊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대에 “평화”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분단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용서 개념이 평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가 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 영역에 참여할 때,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이 무슨 실천적 함의가 있는가? 저자는 평화라는 이슈에 천착하면서 “두 왕국 이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현 시대의 아시아 지역에서 두 왕국 이론을 선이해하여 평화라는 이슈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 역시 평화라는 이슈를 다루면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평화 이슈를 다룰 때, 니부어의 5가지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었다면, 이 소논문에서 니부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가?

아시아의 기후 위기를 문제를 다루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전 세계적 기후 위기 문제는 공공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이다. 기후 위기를 다룰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두 왕국 이론”이 과연 선이해될 필요가 있는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겨났는가? 교회가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작금의 기후 위기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5가지 유형과 기후 위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심지어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은 크리스텐덤의 세계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인데, 지금 아시아의 기독교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이론인가? 루터와 칼뱅이 “두 정부, 교회와 정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왕국 이론이 적실한 이론인가? 저자의 말대로 “기독교인은 결국 세상과 격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할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나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부와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저 국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강조할 것인가? 차라리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두 왕국 이론>을 제시한 후, 이것이 아시아 국가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 혹은 <두 왕국 이론>이 아니라면, 어떤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공공신학이 필요한지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다양한 이유로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공공신학이 필요하다.

평화나 기후 위기의 문제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다. 평화의 문제는 다양한 갈등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공신학적 성찰로 해결해야 한다. 기후 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자가 강조했듯이, 인간의 탐욕이나 경제 질서, 환경 문제, 인간론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룬 “두 정부 이론”이나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룬 “그리스도와 문화”가 설 자리가 애매하다. 아무리 저자가 강조한대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기독교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잘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요원하고 기후 위기는 심각해질 수 있다.